

『陶山十二曲』小考

金 基 卓

〈次 目〉

- | | |
|--------------|-----------|
| I. 序 | III. 作品內容 |
| II. 儒學者의 文學觀 | IV. 結 |

I. 序

李朝時代 性理學의 末流之弊는 마침내 그 學風이 空言空談으로 흐르게 되고 社會는 性理學으로 規範化되어 後代 歷史發展에 많은 沉害와 阻害를 초래케 하였다. 17世紀에 와서는 性理哲學이 쇠퇴기에 접어들게 되자 實學이 대두케 되었지만은 一平生을 性理哲學 研究를 하여 理氣哲學의 體系化와 함께 그것을 發展시키는데 功이 至大한 分은 退溪 李滉이라 할 수 있다. 그의 學問土臺는 바로 儒學에 있고, 儒學이 一常生活의 慣習化가 되고 詩文章에까지 表出된 것은 性理哲學研究의 영향이라 아니 할 수 없다. 退溪는 李朝時代 性理學者中에서도 많은 詩文을 창작하였다. 그는 性理學을 몸소 生活하고 研究하면서도 간간이 詩作에 많은 關心을 가졌고 또 當時 詩文에 對한 理論까지 피력한 바 있다. 이러한 것이 바탕이 되어 晩年에 가서는 陶山十二曲을 創作하여 時調文學 발전상 그 先驅的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小論도 이미 發表된 先學의 硃

- 1) 李家源 退溪의 詩歌文學研究 pp.143~217

退溪學研究(서울 退溪先生 百周年紀念事業會刊)1972

徐首生 退溪文學의 研究pp.117~185 退溪學研究

Vol.1.(대우 慶尙北道刊)1973

徐元榮 退溪의 陶山十二曲研究 pp.79~106

退溪學研究 Vol.2(대우 慶尙北道刊)1974

金慶漢 陶山十二曲에 對한 研究 pp.101~124

陶南趙潤濟博士回甲紀念論文集.(서울. 新雅社 164)

究를 바탕으로 하여 李朝 儒學思想과 관련시켜¹⁾ 陶山十二曲을 一考해 보고자 한다.

II. 儒學者의 文學觀

李朝時代의 儒學者들은 道德을 崇尚하던저도 文章을 애호하고 또 輕視하지 않으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생각하여 왔다. 道文兩立이면서 相互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內容의 重要性 강조보다 道學表現 形式上으로 珍요하다고 여겼다. 그리고 道學을 主로하는 儒敎는 소위 幕士階級(Literatenstand)들을 양성해 내는 데 큰 공헌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계급차가 엄연한 李朝때에는 農工商은 讀書人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글을 읽고 청빈하게 살고 나라에서 주는 녹을 받아 먹고, 先賢의 글을 잘 암송 하고 詩文이나 짓고 倫理道德을 잠그며 같이 역설해 내는 것이 李朝士大夫의 전유물인 것 처럼 생각하여 왔고 또 그렇게 生活하였다. 우리 나라의 儒學은 大部分 中國의 性理學과 朱子의 導入을 계기로 이루어진 學派로서 孔·孟의 學을 근저로 하고 있다. 이 當時 유학의 學問目的은 修己로서 聖賢들의 德과 行을 갖추는 일을 제일로 삼았다. 다음으로 治人·安民·濟世의 順으로 포부를 가지고 實現하는 데 노력하였다. 그러나 儒學者들이 벼슬길로 나아가서 포부와 경륜을 實現해보려고 하지만 君主가 등용하지 않으면 野로 돌아가 隱居하거나, 간신배들에게 무고하게 물리어 귀양살이로 유한생활을 장기간 獨善其身하는 生活을 하게 된다.

性理學을 研究한 李朝 선비들 대부분은 政治에 전혀 관여하지 않거나 은둔생활을 하여 일찍부터 官職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들로 본다. 特히 派閥이 극심해 감에 따라 儒學者들은 禍를 면하기 爲하여 은둔사상은 점점 강하여 갔다. 이러한 은둔생활은 권세 명리의 지위에서 떠남으로써 그 지위에 따른 위험에서 벗어나는 보신책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근본 사상은 곧 道家思想으로 볼 수 있는데, 老子는 事物의 根本에 돌아가는 것을 靜이라 하고 孔子는 靜과 虛를 권하였다. 本來 中國思想은 그 自體가 實際의이고 實行을 요구하는 것이면서도 사실은 오히려 實生活과 유리된 思辨의인 것이 많고 後世에는 文字上의 知識으로서 타락해 버리는 데 불과하였다. 李朝 士大夫들의 知識社會에서의 儒學觀이란 이러한 文字上의 지식과 儀禮의 外形을 지키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했을 뿐 서적에서 얻어지는 지식과

實生活과는 떨어져 나간 것이었다. 그래서 儒學者의인 입장에서 自然을 보는 예를 들어 본다면 윤고산의 「五友歌」의 경우 水·石·松·竹·月은 自己의 心情에서 읊어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詩的表現은 매우 관념적이라 할 수 있는 不斷, 不變, 不屈, 不欲, 不言 등의 抽象名詞로 나타내고 있으며, 他作品에 자주 인용 되는 「四君子」역시 한결같이 절개, 청빈을 약속이나 한 듯이 비유의 상징으로 使用됨을 볼 수 있다. 이같이 文學作品 特히 時調文學에서 느끼는 한결같은 굳어진 관념의 인식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李朝의 유교적 秩序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李朝 士大夫들의 모든 事物의 판단 구분에는 유교적 理性이 지배적이었다고 할 수 있고 時調는 한 계층의 審단을 表現한 것이라고 하겠다. 特히 中世에서부터 李朝儒學者들이 삶의 現實을 認識할 때, 自己 經驗보다 他的 先驗을 先行시키면 作品이 他說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鮮初부터 時調에 반영된 感情은 個人的 것이 아니라, 李朝兩班의 生活感情, 바로 그것이며, 그것은 순전히 유교적 理性의 폭선에 맞추고 있다. 이와 같이 自己 經驗보다 유교적인 理性이 先行할 때 現實은 왜곡되거나 실제의 現實과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美的 趨向은 유교적 理性과 人間의 生活이 하등 乖離라는 것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 하는 儒學의 世界觀에서만 가능한 일이다²⁾. 儒敎의 世界觀의 입장에서 쓰여진 文學作品의 素材는 거의 儒敎의 理性에 論理的 연관을 提示 또는 재확인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時調의 大部分이 自然과의 交感에서 오는 만족의 상태를 나타내거나 유교적 理性에 依한 어떠한 絶의를 表明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李朝時代의 유학자들은 個性의인 思考가 제대로 作品上에 表現되지 못한채 語法上으로 압박을 받는 수가 있다.

「李朝는 個性의인 思考를 거의 부정한 他說的 形式의 時代였다. 그 결과 詩의 個性은 무시되었고 詩語는 他的 先驗에 따르는 固定된 말을 공식처럼 받아들이고 다시 配列하는 것이 제일 존중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있어 온 物에 짐착하고 內的 충동은 억제되며 慣習과 규범에 따라 詩語를 이루는데 있다. 그러므로 詩語는 個性의 속성을 거부한다. 그것은 各個人의 體驗을 새롭게 의식하는 대신에 고정된 이미 있어 온 體와 用의 패턴에 포함시켜 定문화하여 도자이크의 圖像化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個性의인 思考에 짐착할 때, 想像作用은 불가능하고 詩語는 客觀性을 띄기는 하지만 그것은 사물의 實在으로부터

2) 朴喆熙 「時調復興論 再檢討」(文理大學報 Vol 5嶺南大) 1975, p. 26

분리 된 것이기 때문에 類型的이고 抽象적인 것으로 밖에 경험되지 않는다.³⁾

이 같이 詩自體에 있어서의 主觀的 情緒의 自發的 表現을 받고 있지만 李朝 유학자들의 詩語는 先人들의 先驗에서 나온 固定된 말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여 일정한 형식의 틀에 박아서 내는 것이기에 여기서는 作者의 個性의 속성을 자연 거부하게 되는 것이다.

麗朝에 의서는 中國의 陶淵明을 그리워했고, 李朝엔 더욱이 그의 詩와 爲人을 사모하였으나 退溪前後에 더욱 그리워하였음을 볼 수 있다. 辭官歸鄕하는 官僚나 不遇落魄한 隱逸이나 天出愛山하는 士林들은 모두 하나같이 그를 사모하고 그의 글을 즐겼다. 當時 李朝 유학자들도 自然을 사랑하고 田園을 즐겼으므로 觸物感時하여 抒情을 昇化시킨 詩作品으로 쌓은 이루어 詩와 文에는 그야말로 溫厚, 端雅, 圓滿, 簡淡의 眞味가 넘치게 하였지만 이 모두 個性의인 思考를 거의 부정하고 他的 先驗에 依해서 이루어진 他說的 形式에 얽매인 時代라 할 수 있다.

古代人들은 詩와 歌를 同一物의 表裏의 관계로 파악하고 詩歌를 功利的인 目的과 結付시켜 생각하였다.⁴⁾ 그러나 李朝에 의서 只今の 詩는 옛날의 詩와 달라서 노래로 불려야 하는게 노래로 부르려면 반드시 俗語로 써야 한다. 그것은 대개 國俗音節이 情을 나타내는데 꼭알맞기 때문이라⁵⁾ 하였다. 이것은 騷人墨客들에 依해 만들어진 漢詩와는 다른 時調가 歌唱됨을 알 수 있다. 麗詠間에 歌唱의 必要에 依해서 간들려졌던 이 時調는 이조 유학자들 사이에 風靡하였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鮮初以來의 漢文 中心이요, 公式的이며 煩多한 歌曲을 배격하고 個性化한 새 詩歌를 요구하는 詩歌改革의 重大한 時點에서 先覺者의 達觀으로 이 글 實踐에 옮기어 陶山十二曲을 創作하지 못 간접적인 動機를 말해 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陶山十二曲은 李朝 유학자 가운데서도 精粹라고 할 수 있는 退溪의 時調作品으로서 유교주의적인 틀에 맞추어 公的인 思想을 기저로 하여 지어졌다고 볼 때 그 作品에 나타난 情緒와 表現樣式은 李朝 유학자의 입장으로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여기 李朝 때 時調가 유교적인 理性에서 나온 結論을 紹介한다.

3) 朴喆熙 위의책 pp. 20~21 인용

4) 尹榮玉 「閑居十八曲小考」 국어국문학연구 (嶺南大文理大國語國文科刊 Vol. 16 1974.) p.5

5) “然今之詩 異於古之詩 可詠而不可歌也 如徵歌之 必綴以俚俗之語 蓋音節所得不然也(陶山十二曲跋)

“李朝의 時調에서는 個人的인 경험이나 個人的인 독특한 感性은 別로 문체가 되져 않는다. 感受性보다는 圖式的이고 보편성이 있는 他的 先驗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리고 이러한 他的 先驗은 中國의인 故事에서 온 것이거나 아니면 이미 있어온 형태를 취한 것이기를 요구하였다. 그것은 곧 유교적 理性이다.”

「유교적 理性」이란 관점에서 時調는 하나의 도식적인 개념속에서 공통적인 경험과 當代의 보편타당성 있는 진실성을 表現하는 他說的 구조를 가진 형태라 하겠다. 이어서

“時調는 유교적 理性이란 절대적 사고방식 속에서 가장 증식하게 행사해 온 지배 계급의 詩다. 그러나 倫理의 世界를 지배한 것은 감각이 아니라 理念이며 이미저리의 구조는 現實이 아니라 관념이다. 때문에 時調가 同一한 理念에서 비롯하고 時調에 핵심적으로 作用하는 것은 <優倫理, 劣藝術>이란 관념이며 認識의 方法이다”⁶⁾

<優倫理 劣藝術>이란 觀點은 곧 유교적 理性에 立脚한 時調로서 表現的 技巧가 어디까지나 現實의 구조가 아니라 관념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조시대의 유학자들은 學問을 修德求道の 方便으로 삼고 人格完成에 그 目標을 둔 것이 士大夫의 生活이었으니 求道가 生活이요, 生活의 一面이 詩라고 할 수 있다. 그 한 예를 우리는 退溪의 學問的 態度에서 發見할 수 있을 것이다. 退溪도 「道」를 통한 생활체험에서 溶解된 感情의 表出이 그의 詩이니만치 「道」가 곧 그 詩의 內面世界임을 알 수 있다. 李朝의 時調文學에서는 性情의 조려 있는 배합을 重要視하고 典雅와 中庸의 儒教式枯談性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時調文學에는 古典의 側面과 浪漫的 側面을 類別할 수 있다.⁷⁾ 그 古典的 側面이란 과거의 漢詩에서 이러한 바 現實의 秩序 있는 配定을 말 함이요, 浪漫的 側面이란 이를 파괴하고 人間性에의 복귀를 노래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主流는 前者일 것이며 黃眞伊等 妓類나 無名人의 作品에서 後者의 例를 發見할 수 있다. 初期時調는 려말·이조 초기의 懷古歌, 頌祝歌로

- 6) 朴喆熙: “時調와 Moral Imagination”(국어국문학연구 Vol.14, 嶺南大 文理大國語國文科刊) 1972
 7) 朴喆熙: 時調의 構造와 그 背景 嶺南大 論文集<人文科學論> Vol7 1973
 8) 金東旭: 國文學概說, 서울 민중서관 1961. p.69

시작하여 死六臣들의 悲憤慷慨에서 일어나는 時調, 孟思誠, 黃喜, 李賢輔들로 이어지는 田園歌가 등장하고 하나의 의도된 目的下에 創作된 오륜가 어부사 도산십이곡, 한겨 18곡 등의 連時調類등으로 전개되어 간다. 그 밖에서도 「도산12곡」을 지은 退溪의 學問的 價値와 功積을 살펴 보건데 그는 항상「窮理致知와 修己力行」을 學問하는 태도로 삼고 先賢을 배우되 맹목적으로 추종함이 없이 스스로 講究精密하면서 새것을 모색하는 가운데서 自成一家한 것이 그 特色이라 하겠다. 그의 學統을 간단히 살펴 본다면 退溪의 修學期前半은 趙靜庵을 泰斗로 한 至治主義 儒學 곧 孔孟의 思想과 道를 政治나 경제나 教化에 實際로 實現시키던 이른바 實踐儒學이 盛行하던 時期이므로 그 영향을 받았다 하겠고 後半은 趙靜庵이 極刑을 당한 己卯士禍를 契機로 至治主義 儒學이 挫折되면서 새로 要求되는 學風에 따라〈存養〉〈窮理〉를 目標로 삼는 性理學이 일어 나기 始作하던 때이니 그 영향을 직접 받았을 것으로 본다. 여기서 前半보다 後半에 와서 「陶山十二曲」連時調를 創作하게된 時代的 特色을 살펴 본다면 燕山·中宗兩朝에 걸쳐 士禍가 政治 社會面에 큰 不安과 苦悶을 던져 주면서 現實을 否認하고 무언가 理想的인 世세계를 갈망하는 風이 떠돌게 된 것이 그 特色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當時도 많은 學者들이 現實을 등지고 山林으로 파고든 것은 단순한 保身策이 아니라 現實을 否認하고 새 生을 이룩하려는 積極성이 뒷받침이 되어 있음을 認定해야 할 것이다. 自然속에서 은둔하면서 自然美를 체득하고 讀書三昧에 잠겨 至治主義를 대신 해서 〈存養〉〈窮理〉의 性理學을 꽃피운 것이다.

「陶山十二曲」도 이러한 生活속에서 從來의 漢文中心의 公式的인 歌曲을 배격하여 유학자의 個性的인 生活을 그대로 表出한 詩歌로서 言志言學의 서정을 승화시키면서 修道立學한 것일 것이다.

Ⅲ. 作品內容

退溪는 眞城人으로 燕山君七年(1501)에 나서 宣祖 3年(1570) 12월에卒하기까지 生存하였는데 처음 벼슬을 한 것이 34歲되던 해에 承文院 副正字에 除授된 것으로 시작하여 官職을 누렸지만 그는 官에 出仕하기보다는 故鄉에서 陶山書堂을 짓고 學問修德과 後進教誨에 힘쓴 講學期가 더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退溪는 政治家로서보다

學者로서 더 有名하고 또 그를 東方夫子라고 일컫는 所以然도 그의 學問成就가 他人의 追從을 不許하기 때문이다. 退溪도 일찌기 宦路에 발을 끊고 물러가 山林에 隱居하고 修己立學求聖하고자 하는 餘暇에 情緒生活을 美化하고 調和하기 爲하여 「陶山十二曲」이란 連詩調를 지어 言志<言學>의 抒情을 昇化시키면서 修道立學 하였다. 退溪는 溫恭敦厚한 人格으로 野하지도 卑하지도 않는 純靜어린 「陶山十二曲」속에서 主觀의 客觀의 自然美를 發見하고 謳歌하였다. 「陶山十二曲」의 跋文가운데서 創作動機를 살펴 보면 直接的으로는 「寓興七憂」하고 「蕩滌鄙吝感發融通」 하려는 데 있고 간접적으로는 詩歌改革을 促求하는 時代的 要求에 있었다고 하겠다. 또 退溪는 音律에 通曉하지도 못하고 世俗의 樂을 좋아하지 않았으나 한가이 病고치는 여가에 性情에 느끼는 것을 詩로 불렀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노래가 너무 淫哇하고 矜豪放蕩하고 褻慢戲狎하며 玩世不恭의 뜻이 있고 溫柔敦厚의 實이 적었고 漢詩는 頌詠할 수 있지만 歌唱할 수는 없기에 歌唱하려면 우리의 文章으로 바꾸지 않을 수 없으므로 「陶山十二曲」을 지었다고 하였다.

1. 陶山 六曲(言志)

유학자적인 입장에서 退溪도 일찍 宦路에 발을 끊고 山林에 隱居하고 修己立學求聖하고자 하는 길은 오직 自然속에서 冊을 읽고 여가에 정서 생활을 美化하고 調和하는 가운데 자기의 位置를 깨닫게 된다.

이런들 엇다함며 더런들 엇다함료
草野愚生이 이러타 엇다함료
하물며 泉石膏育을 고터므슴함료(1)

李朝 士大夫들은 글을 읽고 道義를 崇尚하고 나아갈 길을 오직 두가지 길이 앞에 놓여있다. 그 하나의 길은 學問연마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부귀 영달을 꾀하는 벼슬의 길이다. 이 두 길은 서로 밀접하여 어느 한 길을 택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이름을 날리고 榮達하며 天下를 두고 兼濟하지만 수많은 士禍의 前轍을 다시는 밟지 않으려고 단념하면서 草野에 묻혀 泉石膏育을 누려 보겠다는 작자의 의지가 담겨 있다. 煩雜(더런들), 純粹(이런들)의 차이는 곧 人間事와 自然사이의 길로서 유학자인 退溪는 만년에 와서 뿐만 아니라 그 以前부터 政治的으로 理念이나 信念이 맞지 않아 그것으로부터 도피하여 純粹한 學問을 위하여 여생을 自然속에서 마치고겠다는 心理的인 동기도 숨어 있을 듯 하다.

그러나 그것도 어려운 일,

煙霞로 지를 삼고 風月로 버들사마
 太平聖代에 病으로 늘거가되
 이 등에 적록는 이는 허뜨리나 업고자. (2)

그 어려운 일은 곧 늙고 病들어서 뜻대로 이루지 못하고 다만 煙霞의 집과 風月の 벗과 함께 修養하지만 남은 소망은 그 옛날 宦路에서 행한 일 가운데 或 잘못이 없는지 걱정하고 여기에 선비다운 風流感覺을 살리고 있다. 退溪는 일찌기 跋文을 통해서 도산 12곡은 世俗의 樂과 音律에 通曉하지도 못하였으나 한가이 病고치는 여가에 性情이 느끼는 것이 있어 詩로 지어 불렀다는 것이다.

淳風이 죽다하니 眞實로 거즈마리
 人性이 어리다 하니 眞實로 울흔마리
 天下에 許多英才 소겨 말썹홀가. (3)

孟子의 性善說에 따라 人間의 性品은 善하다.⁹⁾ 그러나 어진 人生이 淳風에 따라 後進을 教誨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는 결심이 엿보인다. 「得天下英才」는 이조 선비 유학자들이 바라는 일로서 君子三樂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다. 당시 政治的인 士禍의 와중에서 무고하게 헤어나지 못하는 이 땅의 英才들이 올바른 스승을 못 만나 옳은 길을 택하지 못하고 구렁이이에 빠지도록 속이는 似而非 유학자들이 알뜰기만 하여 더욱 후진들에게 教誨警戒하여야 겠다는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다.

幽蘭이 在谷하니 自然이 든디 도해
 白雲이 在山하니 自然이 보디 도해
 이 등에 彼美一人을 더욱 닮디 못하에(4)

이 作品은 士禍와 黨爭을 피하여 鄉里로 돌아와 田園에 묻혀 사는 山林處士의 명월음풍하는 文學的 감각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一般的인 관념으로 山林에 묻혀 은일하는 處士가 아니다. 儒教的 理性的 감각이 적절히 나타나고 옛 聖賢과 같이 好山佳水에서 樂山樂水하는 佳境雅趣를 볼 수 있다. 特히「彼美一人」즉 君主를 잠시라도 잊을 수 없다는 의

9) “孟子曰 水信無分於東西 無分於上下乎 人性之善也 猶水之就下也 人無不善水無有不下”(孟子集註 之卷五 滕文公章句上)

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幽蘭, 白雲처럼 잠시동안의 관상적 태도 보다는 언제나 心中에 떠나지 않는 璽君을 연모하고 있다.

山前에 有臺하고 臺下에 有水一로다.

백관후 울버기는 오명가명 흥겨든

엇다구 破破白駒는 머리 모습 흥느고(5)

初章에서는 自然속에서도 璽君을 연모하는 情을 나타내었지만 계속해서 옛 벗들을 기다리는 心情으로 아름다운 自然의 眞境을 소개하고 있다. 中章의 해오라기 매와 終章의 白駒는 서로 對比가 되는 것으로 당시 <門人>·<學者> 혹은 <愚衆>과 <賢者>의 對가 될 수 있다. 여기서의 賢者는 作者自身을 의미하는 것으로 學問的으로나 政治的으로나 높은 理想을 志向하는 態度의 일면을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

다시 性理學은 儒學者들에 의해 이룩되었고 儒敎主義者들의 힘으로 生活化하였던 것은 當時 時調文學을 통하여 儒敎理念을 나타내었음을 볼 수 있고, 이에 中樞의 役割을 한 이가 곧 退溪로서 그가 차지한 자리가 컸음은 儒學宗匠으로서 그가 處한 位置에 많은 學者門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이 遺作을 통해서 立證혀 주고 있다.

春風에 花滿山하고 秋夜에 月滿臺라

四時待興이 상풍과 흥가져라.

흥몰려 魚躍鳶飛 雲影天光이와 너저 그저 이슬고(6)

退溪는 自然의 이치를 통하여 「養靜·守靜」을 重視하였음을 볼 수 있다.¹⁰⁾ 다시 말해서 靜의 世界에서 修身하고 立學하면서 樂山樂水하며 隱居하였다. 그는 靜의 世界에서 人間을 凝視하고 自然을 통하여 道心에 잠입할 수 있는 修身을 하여 感情을 詩로 나타내었다.

초장의 「春風」의 「花」, 「秋夜」의 「月」은 四時의 대표적인 佳興으로서 人間의 아름다움과 한가지라 함은 곧 自然과 自我가 하나를 이루는데서 얻는 物我一體의 得意를 의미한다. 특히 증장의 「魚躍鳶飛」와 「雲影天光」은 바로 上과 下, 昭와 隱의 妙境을 表現하면서 유학자의 眞樂

10) 徐首生 “退溪文學의 研究” 퇴계학연구 Vol. 1 (경상북도제 1973) p.148

11) 대체로 한국의 哲學的 발전에 기여한 가장 위대한 學者들은 政治에 關係가 없거나 은둔생활을 하거나 일찍 관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들로써 退溪를 비롯하여 柳馨遠, 洪大容, 丁若鏞 등이 그 좋은 例로 들 수 있다. (尹泰林著, 韓國人, 玄岩社刊, p.137 (1970))

을 自然을 通하여 詩와 화합을 시켜 놓았다. 이것은 自然을 노래하는 가운데 物物이 서로 의지하고 造化를 이룰때 物我一體가 실현되고 이때 시의 이상적인 경지로 생각할 수 있다.

「鷺」나르는 것과 「魚」뛰노는 것은 雲影天光과 같이 어리고 솟구치는 모습은 곧 세속적인 욕망과는 거리가 먼 것이므로 자연히 道義로서 心性을 거르고 物我一體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2. 陶山六曲<言學>

天雲臺 도라드러 玩樂齋蕭洒호되
萬卷生涯로 樂事ㅣ 無窮하야라.
이 등에 往來風流를 닐러 모습홀고(1)

「玩樂齋」는 作者의 門人, 弟子들이 往來風流하는 書齋로서 그 위치와 주위 환경을 소개하면서 萬卷生涯의 至樂을 叙述하고 있다. 이것은 곧 讀書三昧의 樂이 끝이없고 그 가운데서 情趣로운 風流가 한결 興겨워지니 一點塵埃없이 마음은 더욱 蕭洒하다 하였다.

雷霆이 破山하야도 聾者는 못듣느니
白日이 中天하야도 瞽者는 못 보느니
우리는 耳目明 男子로 聾瞽호되 마라리(2)

儒者들의 時調는 대체로 教訓時調가 아닌 自然素材의 時調를 많이 짓고 있지만 극히 긍정적인 現實眼내지 世界觀을 反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들의 現實眼은 어디까지나 儒敎의 認識에서 나온 것으로 이 作品에서도 作者는 愚衆의 現實의인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耳目聰明한 자라도 聾瞽처럼 賢者의 밝은 理致를 깨쳐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學問의으로 政治의으로나 높은 理想을 志向하는 態度에 가치가 있다고 볼 때 後學들에게 戒世한 作品이라 하겠다.

古人도 날 못보고 나도 古人못피
古人을 못 봐도 너던 길 알피 잇네
너던길 알피 잇거든 아니 너고 엇덜고(3)

學問을 하는 일은 古人의 길을 逆追하는 것으로 올바른 길을 이어 받고 다시 後學들에게 啓示하는 일이다. 古人들이 직접 걸어 갔던 길, 그

것은 文獻으로 道德律로 나타나 있기에 그 길을 그대로 따라서, 결국 天下萬事가 盡性至命의 極에 이르게 하는 것이 爲學의 순서며 方法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古人의 길에 바로 後世人들과의 話者의 길도 있다는 뜻이므로 他的 先驗에 의해서 서로가 理念上으로 合致될 수 있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古人은 옛 聖人들로서 孔·孟子와 같은 哲人들일 것이며, 그들이 제시한 삶의 방식과 가치를 추종하겠다는 뜻이 나타나 있다.

當時에 있던 길을 밟 허를 넘어 두고
어둠이 돋이나가 이제야 도라온고
어찌나 드라오나니 너의 모습 마르리(4)

옛 聖人들이 가르쳐 준 正路를 가야 함에도 不拘하고 그 正路를 버려 둔채 俗世의 宦界에 헤매다가 늙게 돌아와서 退溪는 50才에 寮柳庵을 지어 門弟子를 모으고 陶山書堂을 卜築하여 講學을 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退溪가 晩年에 와서도 얼마나 學門修德과 後學敎誨에 힘 쓸 것을 作心하는 결의가 충분히 엿보인다.

이 글에 의거는 나이가 들수록 道德의 人格을 形成해 가는 作者의 誠實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退溪의 모든 行爲도 功利心 아닌 純粹한 道義心에서 나온 것으로 誠實히 自己를 省察함으로써 惡을 멀리하고 우리의 本性을 存養하려는 儒學者의 努力을 느낄 수 있다.

靑山은 옛메하야 萬古에 푸르르며
流水는 옛메하야 晝夜에 굄더 아니논고
우리도 그치더 마라 萬古常靑하리라(5)

靑山과 流水는 萬古常靑하고 萬古不止의 상징으로서 學을 하는 자세와 座標를 일러주고 勤勉前進할 것을 강조하는 다시 말해서 學問에 대한 영원한 熱望으로서 靑山流水처럼 푸르고 끝없는 眞理의 길을 向하여 쉬지 말고 노력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자세는 곧 一平生 性理學을 연구한 退溪자신을 이야기한 것으로 後人들에게 心琴을 올려주는 深長성이 서려 있다. 유학자의 경륜을 펴는 도구는 문학이며 이 文學을 通해서 人間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데 대개 이조 유학자들의 作品 내용에는 부귀영달보다 林泉이나 風月을 벗하면서 소재는 어디까지나 自然을 택하고 여기서 모든 人間事를 비유하고 天地萬物의 이치를 논하고 관직을 멀리하면서 오직 자기의 學問研究에 몰두하는 例를 논 수

있다.¹²⁾

愚夫도 알며 험거니 귀 아니 쉬운가.
 聖人도 못 다하시니 귀 아니 어려운가.
 십거나 의립거나 닮은 늙은 주를 몰래라.(6)

學問이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聖人으로부터 愚人에 이르기까지 모두다 배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배우는 가운데 쉽고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지만 옛 聖人들은 다뭇하고 世上을 떠나는 것을 보아서 쉬운 것만은 결코 아니다. 作者도 一平生을 聖人의 學問을 배우기 위해 힘쓰는 사람의 하나인데 그 어려운 학문의 理致를 窮究하다 늙는 줄을 모르게 한없는 至樂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聖人들이 해 놓은 神妙를 窮究하고 造化로 알아 德의 盛者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學問이란 것은 人間의 畢生의 노력으로 하여도 마침내 聖者가 될 수 없음을 자각하고, 다만 命이 다할 때까지 人倫道德을 窮究하여 平生 토틀 自己 修練에 정진하면서 학문에서의 極致의 경지에 이르는 至樂을 느끼겠다는 의미이다. 이 作品에서는 退溪 自身이 學究에 陶醉하는 心情을 表現하였으며 平素의 溫敦한 美感이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如上 說來한 바와 같이 詩人自身的 個人的 發想에서 作品이 만들어지는 하였지만 李朝 兩班社會의 유교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心理的 變화와 정치적 사회적 생활의 경험 과정을 表出한 連時調로서 前六曲은 주로 人間 關係를 경험에서 온 외형적인 면을, 後六曲에서는 內面的인 自我世界와 學究의인 태도를 主題로 하여 지어졌다고 본다.

<陶山十二曲>은 儒學者의 儒敎的인 認識에서 나온 전형적인 作品으로서 時調文學 發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作品의 內面世界는 항상 「道」에 바탕을 둔 詩로서 前六曲의 人格修養과 後六曲의 學問修德을 表現하고 있지만 目標은 求道의 生活을 강조하고 있다.

李朝 中期에는 士禍가 政治 社會的인 면에서 큰 不安과 苦悶을 던져 주는 반면 은둔 생활을 하는 儒學者들 사이에 時調文學이 形態的으로 完成되어 갔고 그들의 힘으로 生活化되어 갔던 것이다. 그것은 당시 時調를 通하여 儒敎理念을 나타내었고 個人生活의 個性이 그대로 時歌에

12) “蓋學聖人者求端自此 而用力於大學之類 及其收功之日而逆極一源 則所謂窮理盡性而至於命 所謂窮神知化德之盛者也”(進聖學十圖 太極圖說全書上 199面,

表出 되고 있었다. 退溪도 일찌기 宦路에 발을 끊고 山林에 隱居하면서 自然의 美를 새로 體得하고 讀書三昧에 잠겨 <存養><窮理>의 性理學을 窮究하면서 한편으로 修己·立學·求聖하고 그것이 뒷받침이 되어 從來의 漢文中心의 公式的인 歌曲을 배격하고 순수한 우리글로서 도산 12곡을 지어서 자기의 情緒生活을 美化하고 言志言學의 抒情을 승화시켜 學問修德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淫哇褻慢을 배격하고 溫柔敦厚한 詩觀¹³⁾에서 創作된 陶山十二曲은 65才 때 지은 것으로 江湖歌道の 先唱者인 龔岩, 俛仰亭의 연시조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후 예전의 漢詩는 口誦詩였지 노래 부르는 樂詩는 아니다 하여 구어로 此曲을 지어 아이들에게 朝夕으로 익히어 부르게 하고 또 「自歌而自舞蹈之」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麗末부터 나온 우리의 固有定型詩와 時調는 歌唱할 수 있는 樂詩의 가능성을 立證하여 주었다.

陶山十二曲의 純靜, 敦厚, 深思的인 美感을 그대로 본 받아 退溪 後43년에 沙村 張經世¹⁴⁾는 「江湖戀君歌」十二曲을 지었다. 詩의 형태도 구분하여 前六曲은 愛君憂國의 誠을 붙이고 後六曲은 聖賢學問의 正을 表現하여 지었고¹⁵⁾ 그 뒤 安瑞羽¹⁶⁾가 楡院十二曲을 지었음을 볼 때 連

- 13) “然今之詩 異於古之詩 可詠而不可歌也 如欲歌之 必綴以俚俗之語 蓋俗俗音節 所不得不然也 故嘗略李歌 而作爲陶山六曲者三焉 其一言志 其二言學 欲使兒輩 朝夕習而歌之 憑几而聽之 亦令兒輩自歌而自舞蹈之”(陶山十二曲跋文)
- 14) 張經世(1547~1615)는 退溪보다 45才年下로 字는 兼善 號는 沙村 本貫은 興德郡守鎭의 아들. 태어나 44才 때 宣祖 22年(1589)增廣文科에 丙科로 證科하고 59才 때 宣祖 38年(1605) 金溝縣令에 在任主 失政의 책임을 물어 罷職 당하고 江湖에 돌아와 餘生을 보내면서 학문도야 힘쓰고 江湖戀君歌十二曲을 지었다.
- 15) 「餘小時 因友人 李平叔 得見退溪先生陶山六曲欲 意思眞音調清純 使人聽之 足以興起 其書端 蕩蕩其邪穢 眞三百篇 之遺旨也 傳寫一本 藏諸笈筒 時使童稚 歌而詠之 大有益 不幸見失於兵火之中 今已十年 謹能得 記數三曲 每於靜夜月明 沈吟之永言之 以寓景仰之懷頌者 適到波軒 偶得印本 及前謂 陶山之六曲也一番吟諷 益覺意味深長 自不知手舞而足 蹈也 謹效其體 足成前後六曲 一以寄愛君 憂國之誠 一以發聖賢學問之正 未及自言其志 極知僭踰無所逃罪 然使家童孩子 時時高詠 以發共歸趣 則猶勝於吟風詠月 流蕩忘返者也 嗚呼 娛母之效 西施妍粧 迥絕 而共主心愛慕 則不萬萬也. 願言君子 恕其狂斐 不以爲罪 則千萬幸甚”(沙村集 乾卷 卷之二 江湖戀君歌跋文)
- 16) 安瑞羽(1664~1735)의 字는 鳳學 號는 兩葉翁. 本貫은 廣州 廣城君 鼎鼎의 祖父다 일찌기 文名이 宇內에 떨쳤고 3才 때 別試文科에 丙科로 登第하였다. 그후 泰安郡守와 蔚山府使를 지냈으나 全羅道 茂朱에 살면서 長安엔 발을 끊고 山林處士로 田園生活을 하면서 楡院十二曲 13首를 지었다.

時調의 作品數, 表現形式, 內容, 技巧등을 보아서 效則일 것이다.

退溪는 陶山十曲을 포함한 短歌十二篇과 歌辭五篇을 우리 文字로 지은 것을 볼 때 平素 詞曲에 對한 큰 관심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거니와 또 歌曲을 몹시 사랑하여 詩歌文學에 對한 理論을 論하고 創作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그 영향이 후세에까지 미쳤다고 본다.

結 論

以上에서 「陶山十二曲」의 作品分析을 통하여 李朝時代 유학자들의 詩作態度를 유학자의 입장에서 연관지어 살펴 보았다. 한 마디로 麗末以後의 時調가 儒學者의 전유물로 사랑 받아 왔으나 個人的인 순수 감정 보담 양반사회의 生活 感情이 유교주의의 틀에 박아서 表出 되었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時調에 사용된 素材가 대부분이 自然과의 交感 상태의 내용이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한낱 객관적인 입장에서 自己經驗보담 他人의 先驗을 빙자하여 詩的 技法으로 表現되었다고 생각된다.

「陶山十二曲」도 唱(가악)을 전제로 한 유학자의 순수한 서정시이고 士大夫의 琴好趣味에 알맞는 時調라고 하지만 그 밑바탕은 儒敎의 理性과는 불가분의 연관을 맺고 있다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나타나는 江湖歌, 道學歌, 忠義歌도 作者의 內的인 층등은 억제되고 습관과 규범에 얽매인 詩語를 나열하는 데는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李朝의 時調文學의 思潮의 背景이 儒敎精神이 지배적이었다고¹⁷⁾ 볼 때 退溪의 陶山十二曲도 유학자의 성리학의 본질을 기저로 하여 나온 작품이다. 退溪以前的 龔岩以後의 沙村, 栗谷, 松岩등이 各已 致仕還鄕하여 道山 12곡, 龔岩歌, 江湖懲君歌, 高山九谷歌, 間居十八曲을 지어 自己의 心境을 吐露한 것을 보면 연시조는 당시 포퓰라한 것이었고, 陶山十二曲 이후 自然을 배경으로 하여 형태적으로 같이 하는 작품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그것은 當時士禍로 인한 社會, 政治的으로 宦海에 서달리다가 致仕하고 歸鄕한 退溪가 後學을 爲해서 學問을 가르치고 窮究하는 가운데 複雜한 心境의 葛藤彷徨속에도 결국 聖賢의 求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心境變化속에서 독자적인 文學觀을 펴고 연시조의 형태에 부쳐 性理學者의 理想을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여 읊어 낸 것이 陶山十二曲일 것이다.

17) 朴喆熙: 時調와 Moral Imagination, 국어국문학연구 Vol 14 p.2 (嶺南大文理大國語國文科刊1972)